2026년도 총회 개요

2026년도 총회 일정에 대한 간략한 개요

아래에서 2026년도 일정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확인하여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6월 22-24일:	온라인 위원회
6월 25~26일:	본회의 준비, 밀워키로 이동
6월 27일:	어울림의 날(하이퍼링크)
	밀워키 노회 및 공공 정책 선교 사무처와 함께하는 공적 증인 위원회 오찬
	타운 스퀘어: 제자 훈련을 위한 준비
	저녁 디저트 리셉션
6월 28일:	지역 교회에서의 예배 총회 본회의 시작
6월 29일~7월 1일:	예배, 총회 본회의 및 선택 행사
7월 2일:	본회의 폐회 총회장 선거 폐회 예배

2026년 총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227회 총회(2026)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회의 시작이 가까워질수록 여러 준비과정이 진행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부름받았고 어떻게 총회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별하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위원회

총회는 먼저 위원회에서 모입니다. 여기서 대의원과 자문단은 노회가 제출한 헌의안과 총회 기관 및 위원회의 보고서를 심의합니다. 이 위원회 회의는 2026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위원회는 총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폭넓게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문단은 조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정회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노회를 대표해서 발의하는 헌의안 옹호자, 총회 기관 및 위원회의 사역을 지원하는 자료 담당자, 그리고 위원회의 결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는 공개 청문회를 직접 들을 기회를 갖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위원회는 교회의 다양한 부분을 연결하는 핵심 접점이 됩니다.

위원회에서 대의원와 자문단으로 선출된 이들은 총회 안건을 읽고, 지역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하며, 모든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마치고, 온라인에서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때로 위원회의 중요한 사역은 오랜 시간의 집중이 요구됩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된 일입니다. 온라인 위원회에 참여하실 때 스스로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하거나, 휴식 시간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동네를 산책하거나, 회의 공간을 좋아하는 물건으로 꾸미거나, 심지어 반려동물이 화면에 등장해 인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총회를 기도로 동행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위원회 회의는 생중계됩니다. 운이 좋다면 귀여운 고양이들을 화면에서 만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준비와 어울림의 날

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에는 이틀동안 전환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본회의 회의장을 준비하는 데 쓰고, 어떤 사람들은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을 읽는 데 쓰며, 또 다른 사람들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총회 참가자들은 6월 26일이 저물기 전에,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이동하여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 새롭게 추가된 흥미로운 행사는 6월 27일에 열리는 어울림의 날입니다. 총회 기획팀은 참가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모이고, 사역을 위한 자원과 연결을 확보하며, 지역에서 장로교 사회 정책을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울림의 날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오전: 공적 증언 기회 (공공 정책 선교 사무처와 밀워키 노회가 주관)
- 점심: 온라인 위원회 이후, 위원회 구성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오찬
- 오후: 타운 스퀘어 행사 – 교단 및 그 너머의 사역 자원과 연결할 수 있는 부스, 자료, 기회 제공
- 저녁: 본회의가 개회되기 전, 디저트와 음료를 나누는 비공식 리셉션
- 어울림의 날에는 어떤 안건 회의도 없으므로, 참가자들은 하루 동안 제공되는 다양한 기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본회의

2026년 6월 28일 일요일은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총회 참가자들은 밀워키 지역의 다양한 교회 목록 중에서 선택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식사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예배는 밀워키에서 미국장로교 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총회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본회의에서는 대의원 전체가 자문단의 조언을 받아 안건에 대해 표결합니다. 분별의 과정을 이끄는 섬김의 소명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러한 대화는 자료와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로 인도됩니다.

한 주간 동안 총회 전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 예배에서는 음악, 말씀, 성찬, 세례의 회상 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총회장과 다른 교단에서 온 손님들의 설교도 포함됩니다.

안건 심의가 끝난 후 총회는 제228회 총회(2028)의 총회장을 선출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227회 총회에서 이루어진 사역을 대변하며, 2028년 총회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주일 오후 본회의 시작부터 7월 2일 목요일 예배로 총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실시간 중계가 제공됩니다. 밀워키 현장에 있든 온라인으로 참여하든, 모두 함께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총회가 중요한 이유

미국장로교의 총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다양한 공동체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공평하고 확장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도록 조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총회 기획팀은 부름받은 모든 이의 은사를 존중하는 도구와 경로를 교회에 제공하는 데 헌신합니다. 온라인 위원회 회의 덕에, 장기간 여행이 어려운 사람들, 질병 노출 위험을 줄여야 하는 사람들,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봉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울림의 날을 통해 참가자들은 행동으로 신앙을 구현하고, 각자의 지역에서의 사역을 강화할 자원을 찾으며,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를 반영하는 신앙 공동체로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밀워키에서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총회는 실체적 경험의 성육신적 현실을 축하하며, 다양한 미국장로교 교회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분별이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서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총회는 교회의 사역과 선교를 이끄는 결정을 내릴 뿐 아니라, 총회 자체의 운영 방식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이는 여러분 덕분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분별하는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